

사계절문학상

수상작

함께 읽기

가이드북

# 한국 청소년문학의 첫마디 사계절문학상



아직 '청소년문학'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1997년, 사계절1318문고는 최초의 청소년문학 시리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뛰어난 청소년문학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한편, 한국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복돋우기 위해 2002년 첫 번째 청소년문학상인 사계절 문학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계절문학상 수상작은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과 내면에 깊이 손 내밀어 왔습니다.

# 차례

## 제23회 사계절문학상 우수상 『못갓춘마디』

교사 서평

독서 후 질문

채기성 작가 인터뷰

## 제21회 사계절문학상 대상 『우리는 마이너스 2야』

교사 서평

독서 후 질문

전앤 작가 인터뷰

## 제20회 사계절문학상 대상 『우리의 정원』

교사 서평

독서 후 질문

김지현 작가 인터뷰

## 역대 사계절문학상 수상작

### 가이드북 집필 조인혜

고등학교 국어 교사. 세상이 좀 더 많은 존재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은 국어 교사다. 배움이 일어나는 경험을 좋아한다.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 분과 ‘물꼬방’과 연수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콘텐츠 ‘호호책방’을 통해 사계절 청소년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함께 지은 책으로 『챗GPT 국어 수업』, 『웹소설로 국어 수업』 등이 있다.



제23회 세계전문학상 우수상

# 못갓춘마디

채기성 장편소설

## 작가소개 채기성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양상블』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세계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못갓춘마디』는 음악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다. 장편소설 『언맨드』로 제17회 세계문학상을, 『반음』으로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받았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부암동 랑데부 미술관』, 『우리의 길은 여름으로』를 썼다.

“재난의 피해자이자 실패한 연습생이었던 주인공이 진솔한 태도로 시와 랩 가사를 쓰며 자기만의 무대를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엇보다 등장인물이 복수 대신 성숙한 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설득력 있는 서사로 풀어 낸 점이 미덕으로 지목되었다.”

-제23회 세계전문학상 심사위원 이승현 작가, 손원평 작가, 강수환 평론가

## 조인혜 교사가 소개하는 『못갓춘마디』

“넌 타인을 위해 문을 열고 나에게서는 문을 닫았네.”

소이의 아빠는 화재 사고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의인이다. 늘 자기 자신이나 가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아빠를 소이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빠를 잃고 난 빈자리에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과 동정받고 싶지 않은 마음, 아빠가 구한 아이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아빠는 의인이었기에 소이는 그러한 원망과 미움을 표현하기 어렵다. ‘가슴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뱉으라’는 반복된 요구를 받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자유롭게 꺼내 놓는 것이 소이에게는 힘든 일임을 보여 준다. 소이를 통해 타인을 귀하게 여기다 돌아가신 이들, 그리고 그들을 잃은 가족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과 상처들이 남았을까.

“내가 누군가의 삶을 빼앗아 버린 것 같았어.”

소이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우제가 있다. 아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아이. 처음에는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인지 살펴보려고 우제에게 다가갔는데, 소이는 곁에서 자꾸만 우제를 보호하게 되고 구하게 된다. 음악을 제외한 모든 일에 무기력한 우제도 소이와 같이 여전히 그때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존자로서의 부채감과 자기 처벌적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 두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우제에게 쏟아지는 주변의 기대와 당부는 자신이 살

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게로 우제를 짓누르고 있었다. 세상 모든 일에 심드렁해 보였던 우제를 미워하고 답답해하던 소이는 그 마음을 알고 나서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던 우제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제가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더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없음을, 누구나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빠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아빠가 불속으로 뛰어든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구든 위협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는 타인을 향한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고.”

시를 쓰고, 꼭꼭 눌러 두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어 랩을 하면서 소이는 자신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주를 밀어냈던 것도, 우제의 곁을 맴돌았던 것도 결국 자신이 당시의 사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는다. 소이와 유주, 소이와 우제의 관계가 원망과 미움에서 이해와 연대로 변화하는 과정은 그들이 각자의 상처에서 벗어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상실의 아픔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 슬픔과 균형을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시 선생님의 존재는 또 다른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시와 랩이라는 예술을 통해 소이와 우제는 말할 수 없던 자신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며 그 마음을 마주하게 되고, 이는 상처를 딛고 이 순간을 살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한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없던 내일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준다.

작품은 제목 『못갓춘마디』와 같이 불완전하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해 준다. 상실과 죄책감으로 상처를 안고 시작된 소이와 우제의 삶이 계속 나아가는 용기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어우러지듯이, 완벽하지 않은 선물로도 함께라면 소중한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삶 역시 불완전하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그 자체로 모두의 삶은 소중하다고 손을 내미는 이 작품이 많은 독자들의 손에 닿기를 바란다.

## 『못갓춘마디』 독서 후 질문

- 1 소이가 '의인'이 되어 돌아가신 아빠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2 소이는 반복적으로 마음속의 상처들을 그대로 내뱉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이가 자신의 상처들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이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요?
- 3 소이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우제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느낍니다. 소이가 느꼈던 감정들과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우제는 왜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부채감을 느낄까요? 타인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5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타당하나요? 누군가의 생명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 6 소이 엄마는 "그 사람이 누구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는."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소이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7 소이와 우제, 소이와 유주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8 시와 랩이 소이와 우제에게 어떤 역할을 했나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9 사회적 참사나 재난 이후 '의인'의 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어떠한가요?
- 10 제목 『못갓춘마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작품의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해 봅시다.
- 11 작품에서 나오는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작품을 근거로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채기성 작가 인터뷰

『못갓춘마디』는 커다란 상처에 뭉뚱하게 얽힌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쓰시게 되었나요?

처음의 구상은 '시를 쓰고 랩을 하는 십대 청소년이 등장한다'였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상처를 서로 보듬고 나아가는 존재들의 얘기를 써 보고 싶었습니다. 플롯에 치중하기보다 등장인물들의 내면 흐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써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썼다가보다는 누군가의 상처와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써 내려간 느낌입니다.

오랜 꿈을 스스로 내려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나 제 편이던 아빠를 잃은 소이. 하지만 소이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소이는 삶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아빠의 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난 만큼, 타인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이는

그 과정들을 통해 정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안에도 아빠를 비롯한 타인의 모습과 상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 가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목소리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재난과 상실이라는 목직한 주제를 ‘음악’으로 아우릅니다. 소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통로로 음악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설의 형식적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소설을 읽으며 독자는 텍스트로 읽은 것을 스스로의 논리로 이해하거나, 혹은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이 이 소설 안에서 실제로 연주되거나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읽는 행위를 통해 각각의 독자가 자신만의 음악으로 상상하거나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 독자와 공감각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네 삶의 흐름과 음악의 요소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요소가 이 소설이 가진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형상화 하는 데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시를 쓰느냐는 질문에 김시은 선생님은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기우니까” 평형을 이루기 위해 쓴다고 대답합니다. 소이에게는 음악이, 시현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어떤 독자님에게는 이 작품이 그런 힘이 되겠지요. 작가님에게도,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를 지탱하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못갓춘마디』는 전체적으로 편집자님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걸이 이야기 속에 많이 녹아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공감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가끔은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결에서 괜찮다고 말해 주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있어 지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정말 괜찮은 건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무게가 조금 덜어지거나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름 모를 어떤 새의 울음소리, 불을 어루만지는 바람과 하늘, 누군가의 친절, 그리고 미소 같은 게 언 마음을 녹여 주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의 희망이 아니라도, 가끔은 희망이 절망하는 우리의 발목을 낚아채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작가님은 왜 글을 쓰세요?

제게 위로가 된 게 글이었던 것처럼, 제 글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기도하듯 쓴다고 하면 될까요. 제가 위로받았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글로서 닿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제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곤 하거든요. 그것으로 제 역할과 의미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이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때 소이 안에는 자기만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을 텐데, 작가님은 어떤 곡을 들으며 영감을 얻으셨나요?

맞습니다. 특히 밤의 버스 안에서 자주 듣는 곡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히사이시 조(Hisaishi Joe)의 ‘Angel Bell’ 그리고 이주영의 ‘집에 가는 버스’ 같은 곡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영감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기꺼이 위로하는 순간들이 무척 마음에 남습니다.

애도와 공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인 것 같아요. 상처를 존중해 주는 마음. 때로는 상처에 무감해 상대방이 받는 상처가 상처인지 모르는 이들도 존재하고, 개인의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는 개인적 상처보다는 사회와 조직을, 관계보다는 성장이나 성취를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깃든 상처를 들여다보려는 마음, 그것을 경시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하지 않는 시선이 우리 스스로를 보다 공감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나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소령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있던 소이의 마음이 덜어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쁜 마음을 안고 소이가 뛰어가는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되새겨 떠올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은가요?

어딘가 담아내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를 써 가고 싶습니다. 사회와 제도, 규칙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글쓰기를 해 가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용기를 내어, 제가 쓰는 글이 어떤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모두 미숙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타인이 필요한 건, 우리가 모두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씩 저마다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추지 않으면 빛날 수 없는 존재요. 빛날 수 있도록 비추는 타인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저의 미숙한 글과 소설을 비추는 독자가 타인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못갓춘마디』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님들이 이 책에 깃들여 주신 시선이 소설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부여해 준다고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작가 소개 전앤

대학에서 문예창작학을 오래 공부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청소년들과 얘기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이야기를 짓는다. 『우리는 마이너스 2야』로 제21회 세계절문학상 대상을, 같은 해에 『러브 피프틴』으로 교보문고-롯데컬처웍스 스포츠 테마 소설상을 수상했다. 쓴 책으로는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공제)가 있다.



제21회 세계절문학상 대상

## 우리는 마이너스 2야

전앤 장편소설

“이 소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빛을 지고 갚는 관계’로 은유한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 잘 살아 내야 한다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존재 들임을 점점 잊고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제21회 세계절문학상 심사위원 김해원 작가, 오세란 평론가, 조우리 작가

## 조인혜 교사가 소개하는 『우리는 마이너스 2야』

###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합치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야.”

주인공 미주의 말에는 요즘 아이들의 외로움이 담겨 있다. ‘생존’,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 ‘같이’보다 ‘혼자’가 익숙한 아이들, ‘같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혼자’를 택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는 마이너스 2야』를 전해 주고 싶다.

### ‘불 꺼진 상점’

주인공 미주는 스스로를 ‘불 꺼진 상점’처럼 느껴 왔다. 자신이 친해지고 싶었던 ‘윤이서’를 향해서만 잠시 불을 밝히고 문을 열었지만, 관계가 틀어진 후 다시 폐점했다. 자신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 외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한다. 거짓말과 돈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서툴게 시도했지만 거짓말쟁이 낙인만 찍혔고, 미주는 은따가 되었다. 친구를 갈아 끼우는 정도의 작은 용기를 내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혼자가 될까 봐 그러지 못했다.

미주는 자의와 타의로 외로움에 놓여 있다. 유명이자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면서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아이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직접 자신에게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미주 스스로도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할 자신도, 이해받을 자신도 없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장 편안한 방식’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세아를 통해 세정을 알아 가면서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가장 나쁜 선택임을 깨닫게 된다.

### “등짝 좀 빌려줄래?”

이 작품은 반에서 따로 걸돌던, 저마다의 방식으로 외로웠던 세아, 미주, 세정의 이야기다. 사고로 죽은 세아가 귀신이 되어 미주를 찾아온다. 원한을 갚으러 온 것도, 신세 한탄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세아는 미주에게 빌려 간 오백 원을 갚으라고 한다.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렸을 때의 ‘기억’으로 갚아야 한다는 세아의 말은,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돈’으로만 환산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기억’이라는 말 안에 담긴 ‘함께 나눈 시간’과 ‘마음’, ‘관심’과 ‘감정’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그러한 빛을 서로 지고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관계라는 점을 보여 준다.

미주가 빌려 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자, 세아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세정’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다. 미주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같은 자신과 세정이 친구가 돼 봐야 ‘마이너스 2’가 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거절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정의 다른 면들을 발견하고, 세아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미주는 ‘함께 있어서 외로움이나 슬픔이 줄어들 수 있다’던 세아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미주 할머니의 말처럼, 세상에 상관없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사람이 구할 수 있다. 사람(人)이라는 글자가 보여 주듯, 우리는 서로 등을 내어주고 기대어 살아간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힘이 되어 주고 위로받을 수 있다.

### “나는 나를 대표하는 나야!”

‘나를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 세상에서, 미주는 거짓말로, 세아는 웃음으로, 세정이는 큰 목소리와 행동으로 자신의 억울함, 슬픔, 두려움과 같은 진짜 감정들을 숨겨 왔던 외로운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죽은 세아는 살아 있는 미주와 세정이 진짜 자신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작품은 세정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 대신 보는 이가 각도를 바꾸어 보도록 한다. 미주는 ‘달의 이면을 발견하듯이’ 세정의 같은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김세정이 달라질 이유는 없듯이’ 자신도 ‘나’로서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 대해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미주. 그런 미주가 자신을 보고 킁킁대는 아이들의 눈빛과 웃음소리에 개의치 않는 모습은, 이제 미주에게 자기 내면에 작은 불을 켜 용기가 생겼음을 보여 준다.

작품 속에서 할머니는 초코파이 귀신, 화투 귀신, 꽃감 귀신 등으로 불린다. 미주는 할머니를 ‘이야기 귀신’ 같다고 생각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할머니의 이야기는 신기하고 기묘한 세계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는 기분에 빠져들게 했기 때문이다. ‘혼자’가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 작품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같이’의 의미를 일깨워 줄 것이다.

## 『우리는 마이너스 2야』 독서 후 질문

- ❶ 작품 속 미주, 세아, 세정 중 가장 공감이 되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❷ 세아는 미주에게 ‘빛’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관계에서 ‘빛’을 졌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 ❸ 미주가 ‘혼자’ 지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장면과 이유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 ❹ 자신이 ‘마이너스 1’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느껴졌나요?
- ❺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이너스 1’ 같은 존재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❻ 누군가 자신을 ‘마이너스 1’로 느끼게 되는 이유는 개인적 요인 때문일까요? 사회적, 외부적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❼ 미주와 세정이 ‘마이너스 1’ 같은 존재에서 서로의 빈틈을 채워 주는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어떤 점에서 서로의 빈틈을 채워 가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 ❽ 미주가 세정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세정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미주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 ❾ 미주 할머니는, 세상에 상관없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사람이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이러한 말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❿ 세아가 미주에게 빌린 ‘돈’ 오백 원이 아니라 오백 원을 빌렸던 ‘기억’으로 갚아야 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쓴이는 ‘기억’에 대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 전앤 작가 인터뷰

### 『우리는 마이너스 2야』는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열여덟 살의 세 친구가 각자의 외로움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외로움에 관심이 많아요. 결국 제가 책을 읽는 이유도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고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독자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외로움을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동기에는 친밀감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느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 버렸잖아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외로움에 익숙해지거나 잘 극복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나이가 들고 경험치가 쌓이면 조금은 수월하게 받아넘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외로움 수밖에 없는 요소가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 외로움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힘든 감정일수록 그 안에 품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잘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 주인공 미주는 꽃히는 것이 있다면 무척 대담하게 행동하는 친구 같아요.

미주는 친구 관계에서 외롭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예요. 집에서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야물게 해야 할 일도 해내는 당찬 아이인데 학교에서는 기를 못 펴죠. 미주는 특정한 친구를 원했어요. 시야가 좁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실에 많은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소수의 친구하고만 어울려요.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데 그런 생각과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머뭇거리다 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주는 자신이 원했던 특정 친구만 시야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애와 친구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어요. 심지어 그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엄마 카드까지 훔쳐서 돈을 쓰죠. 결국 그 일로 아빠와 근로계약을 쓰고 빚을 갚게 되는데, 그 부분이 소설의 시작이에요.

미주가 좋아했던 그 친구는 미주를 떠나게 되고 그때 미주는 이제 내게 친구는 없어, 하고 바로 외로움의 단계로 가 버리고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스스로 반에서 유령으로 지내면서 조용히 아이들만 바라보죠.

###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만남, 꼭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일까요?

소설 안에서 미주가 유령인 세아에게 그런 말을 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를 더하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러니 자신과 세정은 차라리 친구가 되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그러자 세아가 ‘마이너스가 꼭 나쁜 거야?’ 하고 되묻죠. 이 소설은 세아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죽게 된 세아는 살면서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앞으로 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진짜 마이너스 삶으로 등장하죠. 모든 걸 잃어버린 세아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미주와 세정을 연결해 주는 것. 왜냐하면 세아는 외로움이나 슬픔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는 외로운 둘이 서로의 등을 맞대는 동안 혼자만의 슬픔이나 그리움 나아가 외로움이 덜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이 소설에서 마이너스는 ‘함께하면 덜어질 수 있는 그

런 감정'을 의미해요.

청소년 시기는 무리해서라도 무리에 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시기라 생각해요. 무리에 끼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심지어 나를 문제 삼기도 하죠. 내가 문제가 많은 걸까? 나는 왜 어울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에 빠져 많은 시간을 보내요. 누구나에게 외로운 순간은 있어요. 아이들이 외로움에 빠져 지내지 않고 자신 안에 고요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작가님에게 청소년문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더 많이 읽고 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 영화도 혼자 보고 운동도 혼자 해야만 글을 쓰기 위한 상태, 루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글을 쓰면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니 청소년들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오래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재미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약함과 함께 넘치는 박진감을 품고 있는데 성인들의 대화보다 훨씬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자꾸 빠져들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학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청소년문학도 재미있는 거예요. 많이 읽다 보니까 또 쓰고 싶어졌고 쓰면 쓸수록, 제가 미처 몰랐던 저만의 화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청소년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숨을 쉬는 기분 같달까요. 그러니까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화를 내고 더 많이 불안해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구나. 뭔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요?

두 번째 소설이 곧 나오는데요. 테니스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예요.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문학과 닮은 지점이 많아서 이 소설도 재미있게 썼어요. 저는 문학은 마음을 쓰고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잘 만든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력하고요. 장편은 스토리텔링이 좋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텔링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포츠, SF, 판타지 등 장르를 과감하게 연결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

청소년소설은 성인소설에 비해 동선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학교, 집, 학원, 동네 정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게 마치 '인생 네 컷'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인생 네 컷이 아닌 '인생 백 컷'을 닮은 청소년소설을 쓰고 싶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책을 읽으면서 잠시라도 편안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는 마이너스 2야』를 치열하게 썼지만 독자 여러분에게는 다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20회 세계절문학상 대상

## 우리의 정원

김지현 장편소설

### 작가 소개 김지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늘 글을 써 왔다. 새로운 세계를 짓고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즐겁고 충만하다고 느낀다. 『우리의 정원』으로 세계절문학상 대상을 받았고, 청소년소설 『브로콜리를 좋아해?』, 『오늘의 기분은 사과』, 『너의 꿈에도 내가 나오는지』를 썼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를 긍정하는 열린 시선, 상대방과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인물들의 태도도 믿음직스럽다. 나아가 따스한 숨결과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내 곁의 소중한 관계까지 관심을 놓치지 않는다. 좋은 소설이 독자에게 정답을 알려 주기보다는 새롭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면 이 소설은 분명 그러한 장점을 지닌 작품이다.

-제20회 세계절문학상 심사위원 오정희 작가, 김해원 작가, 오세란 평론가, 정은 작가

## 조인혜 교사가 소개하는 『우리의 정원』

『우리의 정원』을 읽고 나면,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한 아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그와) 대화한 기분이 든다.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풀어 낸 인물의 생각과 감정들은 나와 타인을 알아가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오랜 고민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을 통해 ‘정원’이 닿게 되는 깨달음에 독자도 함께 닿을 수 있다.

### 진짜 ‘나’는 누구지?

열일곱 살 ‘정원’은 아이돌 그룹 에이세븐을 덕질하는 아이돌 덕후지만, 이 사실을 학교에서는 알리지 않는다. 에이세븐은 정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를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비하하는 타인의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덕질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자 ‘나를 이루는 것’이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 가게 된다.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좋아하느냐에는 나의 가치관이 반영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에게만 방을 하나씩 내주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빚어지면서 한 사람의 내면이 완성되는 건지도 모른다.(『우리의 정원』, 90쪽)

이 작품은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불안을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으로 돌려 놓는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단지 취미나 취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된다. 쿠키 책방 사장님 부부, 상담 선생님, 소민 언니 같은 이 책 속 ‘어른’들은 어른의 삶이라고 해서 안정되거나 고정된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나이에 관계 없이 삶은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다채로운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 친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믿음과 응원의 대가가 상처와 실망이 되어 되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과 뽀뽀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나?(97쪽)

정원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주원과 혜수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꺼내야 할지 고르고 고르지만 겉돌기만 하는 느낌. ‘친하다’는 말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 친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정원은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목요 독서회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정원은 에이세븐은 물론이고 서로의 관심사나 취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관심을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례, 지은, 나현을 통해 관계에 대한 믿음을 배워 나가고, 그 믿음은 이제 혜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된다.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정원은 그 마음에 공감하며 혜수에게 닿을 수 있다.

## 너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니?

정원과 달이, 정원과 혜수의 모습은 SNS에서의 '나'와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조심스럽기만 한 관계이다가 온라인상에서 더 내밀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훨씬 짧은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작품은 어느 한 세계만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두 세계 모두 각각의 역할과 특징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다만 정원이 혜수를 초대하고, 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털어놓으며 손을 내민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마주 앉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정원이 에이세븐을, 책을,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어 가듯, 우리도 각자의 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좋아하는 것들에 방을 하나씩 내어주고, 상처받더라도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내밀 용기를 내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 작품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너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니?'라고 다정하게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독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계를 돌아보며, 나만의 정원을 가꾸어 갈 용기를 북돋운다.

## 『우리의 정원』 독서 후 질문

- 1 정원이 하는 고민 중 공감이 가는 것이 있나요? 어떤 고민이며 왜 그런가요?
- 2 정원이에게 '에이세븐'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느껴지나요?
- 3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4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 5 친구가 되는 데에 있어 같은 관심사, 같은 취향이 꼭 필요할까요? 다른 관심사나 취향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 6 온라인에서의 '나'와 오프라인에서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각각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7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왜 필요한가요?
- 8 작품에서 말하는 내면의 '정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9 작품에서 나오는 여러 어른들(소민 언니, 쿠쿠 책방 사장님 부부, 상담 선생님 등)은 정원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 10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얻게 된 용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김지현 작가 인터뷰

### 『우리의 정원』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의 정원』은 ‘친한 친구’란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주인공이 직접 눈을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인물을 만나 관계 맺기를 배워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은 선불리 상대방을 다 안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강요하지 않아요.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인연이 닿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그 인연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한지, 주인공과 친구들을 보며 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등장인물은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교실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을 생각하다가, 외로움, 소외감, 거리감 같은 단어들만 제 안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의 정원』을 구상하는 초반에는 아이들 덕질, 팬덤 문화나 SNS 관계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다룬 논문들을 한참 뒤져 보기도 했어요. 연구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인물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꼭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 주지 않아도 주인공의 내면을 섬세

하게 그려 내면 얼마든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어떤 계기로 청소년소설을 쓰게 되셨나요?

출판사 신인상 공모에 여러 차례 도전하다가, 문득 친한 친구들에게 청소년소설을 쓸 거라고 말했다니 친구들이 정말 잘 쓸 것 같다고 답해 준 게 기억나요. 그때는 친한 친구들이니 무조건 나를 응원하고 좋게 말해 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야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정원』 원고를 사계절출판사에 보내고 돌아오면서, 바로 다음 응모작은 어떻게 쓸지 고민했어요. 청소년기에 대해서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사계절문학상에 공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계절문학상 20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청소년문학에 대한 합의’라는 키워드가 나와 노트에 적어 놓았어요. 청소년문학이 그저 청소년 주인공이 나오는, 목표 독자층을 청소년으로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 아이들과 그 삶을 대하는 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치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길에, 제가 20회 수상자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 임상심리사 김지현이 본 청소년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하는 일은 심리검사를 통해 수검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일이다 보니 현실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그만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제3자이자 어른인 저의 눈에는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그 친구에겐 무엇보다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일일 때가 있잖아

요. 그럴 때는 저를 조금 내려놓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들어 주고 싶어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생각보다 명확한 답이나 판단을 대신 내려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 하는 조언보다는 그저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 줄 상대가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우리 모두의 정원에게

제가 청소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신념은, 어쩌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향을 다잡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선하고 옳은 가치들을 접하고 좋은 친구,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사회의 좋은 어른으로 기능하고 싶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소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 명이 읽으면 열 명 모두 재밌다고 극찬하는 이야기를 쓰는 건 무척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인연, 이어짐과 같은 단어를 자주 떠올렸어요. 단어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마음속에 심어 놓으니, 조금 더 곁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소설이 굵직하고 극적인 사건보다는, 인물과 관계가 이끌어가는 이야기라고 느껴져요. 그렇기에 저는 내용이 재밌다는 평가를 듣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좋겠지만, 많은 분이 『우리의 정원』을 읽고 나서 그저 주변의 사람들, 소중한 관계들을 마음껏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우리의 정원』이 내 곁을 조금 더 돌아보게 하고, 가까운 곳에서 친절과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02-2025

## 사계절문학상 역대 수상작



제23회 사계절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 못갓춘마디

채기성 장편소설

#재난 #이별 #치유 #음악

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순간

화재 사고 때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아빠. 사람들은 아빠를 의롭다고 칭송하지만, 소이는 아빠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아빠는 아빠가 구한 아이의 생명이 자신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빠와 살아남은 이들,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입을 다물었던 소이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노래하기로 한다.



제21회 사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

### 우리는 마이너스 2야

전엔 장편소설

#관계 #외로움 #작은관심 #운명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이너스에게 보내는 진심

우리의 관계는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스스로를 마이너스와 같은 존재로 치부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심 어린 위로. 학교 공식은 따 미주, 유행처럼 지내다 진짜 령이 되고 만 세아, 존재감은 두 배, 사교성은 마이너스인 세정까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모여 서로의 빈틈을 채워 주는 작지만 따뜻한 관계.



제20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 우리의 정원

김지현 장편소설

#덕질 #좋아하는마음 #취향 #관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다정한 세계

‘좋아하는 마음’이 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과정에 대해 그렸다. 모든 청소년이 마음껏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지지할 때 만들어지는 자유롭고 다정한 세계를 담았다.



제18회 세계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 오, 사랑

조우리 장편소설

#성소수자 #자기발견 #다양성 #사랑

틀리지도 다르지도 않은, 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사랑이라는 뜨겁고 순수한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이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두 소녀의 이야기. 작가는 청소년들의 사랑을 개성 넘치는 언어로 표현하였고, ‘존재 자체에 대한 순수한 감정’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편견 없이 풀어냈다.



제16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 장편소설

#홀로서기 #공존 #이해 #청각장애

눈을 감고 귀를 닫아야만 들을 수 있어요

수지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인공 와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진다. 완벽했던 침묵의 세계에서 불완전한 소음의 세계로 옮겨진 수지는 낯선 세상에 적응해 나가려 눈과 귀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한다.



제15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 소년아, 나를 꺼내 줘

김진나 장편소설

#짝사랑 #정체성 #사춘기 #믿음

짝사랑이라는, 고요하게 들끓는 내면에 대한 우아하고 투명한 응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열여덟 살 ‘시지’는 어느 날 엄마 친구 아들 ‘얼’을 만난다. 그 날부터 시지는 모든 시간과 온 마음을, 얼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데 쏟는다. ‘사랑’을 앓고 있을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용하고 끊임없이 흔들며 내면에 파동을 일으키는 투명하고 잔잔한 이야기.



제14회 세계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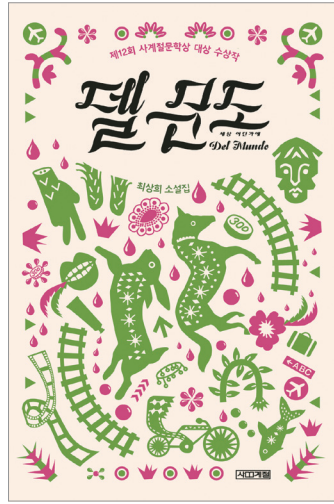
## 싸이퍼

탁경은 장편소설

#힙합 #재능 #꿈 #소통

“싸이퍼는 함께하는 거야. 주고받고 소통하는 거야.”  
싸이퍼로 들여다본 두 래퍼 이야기

힙합에 재능이 있으면서 즐길 줄 아는 도전과 힙합을 누구보다 좋아하지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혁의 이야기. 힙합에 맡을 담고 꿈을 꾸거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힙합의 언어로 펼쳐진다.



제12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 델 문도

최상희 소설집

#기억 #환상여행 #상실 #위안

꿈꾸듯 여행하듯 당신이 그려 본 세상 어딘가,  
'델 문도'를 찾아서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영국, 호주 등 각기 다른 시공간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일상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인생'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에 이른다. 아홉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기억과 마주하며 낯설고도 따뜻한 세상 어딘가, '델 문도'에 가닿을 것이다.



제11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 더 빨강

김선희 장편소설

#욕망 #매운맛 #맛있는인생 #현재

무색무취한 당신의 삶에 '빨갈게' 스며드는,  
뜨겁고 진한 이야기

길동의 아빠는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일곱 살 꼬마가 되어 틈만 나면 지붕에 올라간다. 아빠를 돌보느라 지친 길동 앞에 어느 날 동갑내기 소녀 오미령이 나타난다. 길동은 미령이 운영하는 '더 빨강'이라는 식당락 모임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독한 삶에 놀랍도록 강렬한 일들이 생겨난다.



제10회 세계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 우주 비행

홍명진 장편소설

#탈북청소년 #관계 #밴드 #성장통

'이쪽'과 '저쪽', 그 경계에 선 박승규의  
대한민국 표류기

낮선 남한 사회에 쉬이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무중력 상태로 지내던 탈북 청소년 박승규가 천천히 자신의 삶을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작가는 '이쪽'과 '저쪽', 그 어정쩡한 경계에서 있는 승규의 갈등과 내면 심리를 밀도 있는 문장으로 써냈다.



제9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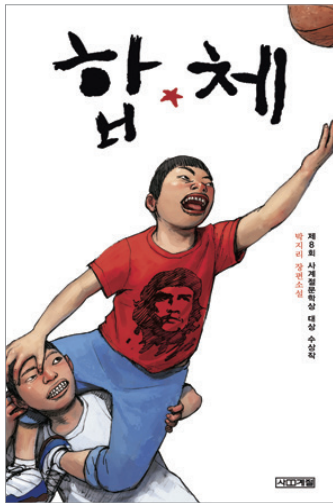
## 내 청춘, 시속 370km

이승현 장편소설

#자유 #보라매 #바이크 #매사냥

지금 당신의 청춘은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나요?

열일곱 살 동준은 매잡이에 빠진 아버지를 둔 탓에 인생이 불행하다. 동준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만의 바이크를 갖는 것. 결국 동준은 바이크 살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의 조수로 들어가고, 어린 보라매 '보로'와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동준의 매 길들이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제8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 합★체

박지리 장편소설

#나다움 #콤플렉스 #모험 #무협

난쓰공의 자식들, 자신만의 진짜 공을 쏘다

쌍둥이인 '합'과 '체'는 같은 반에서 키순으로 1, 2번을 다투는 사이이다. 어느 날 동생 체는 동네 약수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자칭 '계도사'한테 키 크는 비기를 전수받고, 합과 함께 짐을 꾸려 계룡산으로 수련을 떠난다. 33일 동안 '형제동굴'에서 수련을 쌓아야 하는 합과 체. 이들은 무사히 수련을 마칠 수 있을까?



제6회 세계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 열일곱 살의 털

김혜원 장편소설

#인권 #두발규제 #역사 #털

열일곱, 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다

평범해 보이지만 독창적인 캐릭터 '일호'의 머리카락 이야기로 시작해 학교 두발 규제와 관련한 청소년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일호의 가족사, 우리 사회와 역사까지 담아냈다. 일호의 긴 여정을 함께하다가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내고 단단해지는 일호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



제4회 세계전문학상 대상 수상작

## 몽구스 크루

신여랑 장편소설

#비보이 #진로 #결핍 #고뇌

지금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청소년기의 결핍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춤에 헌신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기,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발견한 인물들의 브레이크 댄스에 매료된 열정이 실감나게 펼쳐진다.



제2회 세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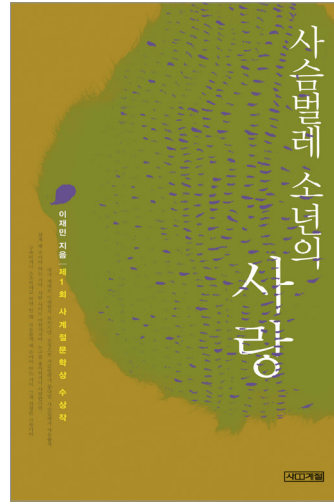
## 푸른 사다리

이옥수 장편소설

#소년범 #생존 #평등 #빈곤

초라하고 비루한 삶 속에서도  
꽃피는 따뜻한 인간애와 미래의 희망

힘없고 돈 없고 참혹하게 찢겨진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흘러들어 아웅다웅 살아가는  
'서초동 법원 단지 앞 꽃마을 비닐하우스촌'  
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비행 소년으로 낙인  
찍혀 가는 과정과 도시 빈민들의 애환을 겹  
쳐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내밀한 교감을  
풍요롭게 그려 냈다.



제1회 세계절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

이재민 장편소설

#첫사랑 #자연 #이성 #순수

“사슴벌레는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아.  
하지만 알잡아 보게끔 하지도 않지.”

이성에 눈떠 가는 소년의 심리와 자연에 대  
한 섬세한 묘사가 조화를 이룬 수작. 가려움  
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수터에 목계 된 소년  
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잔잔  
하게 그림으로써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자연  
에 맞닿아 있는 삶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감  
각을 선사한다.